

축사



김형연
법제처장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 개원 이래 대한민국 법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의 입법정책 지원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법제도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시켜온 인프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법제’라는 제도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정책을 법제화하는 것은 정책을 펼치기 위한 시작점이며 동시에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앞으로도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종착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법제도에 관한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법제정보를 수집·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주요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세계에 알림으로써,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달성해 낸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법제연구원이 보여준 뛰어난 연구성과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관평가 등에서 여러 차례 거둔 우수한 성적은 이를 반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대한민국 법제 발전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고 법제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2013년 이래 아시아법제전문가 회

“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0주년을 축하드리며,
한국법제연구원 가족 모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의ALES를 공동개최해 왔고, 관학공동학술대회 공동개최, 정책연구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행정법 현안과 그 법제화 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에 관한 논의를 함께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행정법 체계의 근간을 세우는 행정기본법 제정에도 뜻을 함께하여 제정안 마련, 공청회 개최 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주며 마르지 않는다는 뜻의 이택상 주麗澤相注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대한민국의 법제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올 한해에도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 현안에 관한 뛰어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활약을 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연구네트워크를 더욱 확장·발전시켜 대한민국 최고의 법제전문 연구기관을 넘어서 선진적이고 세계적인 법제전문 연구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연구에 대한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의 지금을 만드신 한국법제연구원의 전·현직 원장님들,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 가족 모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